

농지관리도 디지털 관리체계로 전환

- 인공지능(AI)기반 농지조사분석, 농지현황 DB화로 체계적인 농지관리시스템 구축
- 본인 소유·임차 농지 정보조회, 임대차 만료농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제공

한국농어촌공사는 21일 최근 인공지능(AI), 드론 등 최첨기술을 농지조사에 적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농지의 취득·소유 및 이용·전용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농지상시조사 업무에 AI 기반의 지장물 자동식별 등 분석기능을 활용한다. 올해는 지난해 시범 실시한 AI 농지분석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AI 분석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농지조사 및 분석결과는 농식품부 차세대 농업농촌 공간정보 통합시스템과 전국 지자체 농지대장 정비에 활용될 예정이다.

공사는 지난해 농지원부 중심의 농지관리체계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889만 필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종전 1인당 하루 평균 조사량이 55필지에 불과하던 것을 모바일앱과 항공촬영 및 드론 조사방식을 도입하여 하루 조사물량을 111필지로 약 2배 가량 끌어올렸다.

민원인의 농지정보 조회 및 농지대장 발급 서비스도 대폭 개선되었다. 농지공간포털(<https://njj.mafra.go.kr>)을 통해 농지 소유인 또는 임차인이 농지정보*를 조회하고 정부24 연계를 통한 농지대장 발급 등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농지위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력, 전용이력, 임대차여부, 농지대장 작성여부 등

또한, 올해부터는 농지 소유자 및 임차인을 대상으로 국민비서*를 통한 농지 임대차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를 오픈하여 농업인의 계획적인 영농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 국민비서란?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개인 맞춤형으로 안내해주는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행정안전부 주관)

** 계약종료 1년 전, 6개월 전, 2개월 전, 종료 시 카카오톡 채널 등 SNS를 통한 알림(총 4회)

이영훈 농지관리처장은 “농지관리업무에 대한 디지털 관리체계 도입 및 시스템 기능개선으로 업무효율성과 불편해소를 통해 고객만족이 향상되었다”면서, “디지털전환은 시대를 대표하는 패러다임인만큼 농지관리분야의 디지털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농지관리처 농지관리기획부	책임자	부 장	윤경식 (061-338-6191)
		담당자	차 장	최지은 (061-338-6192)